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22, 마가복음 14:26-72, 최후의 만찬, 체포, 재판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마가복음 14:26-72, 최후의 만찬, 체포, 재판,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동안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에 마가복음 14장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는 무대를 마련했고,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 식사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날 위대한 행위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맥락에서 설정하고, 탈출기 이야기는 예수가 하는 일을 지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배신자의 선언과 예수가 그들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이라고 어떻게 계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운데, 그들이 예수와 논의하면서, 예수가 그들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슬퍼하면서, 그들은 모두 나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약간의 희망이 없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글쎄요, 아마 우리 중 한 명뿐일 수도 있겠죠? 알다시피,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의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만이 배신자이기는 하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이 끝날 때 부르기에 적합한 찬송가를 부른 후, 그들은 올리브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떨어져 나간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요. 그러나 내가 일으킴을 받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나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너와 함께 죽어야 한다면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똑같이 말했다.

그들이 모두 떨어질 것이라는 예수의 예언은 스가랴 13장 7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그 예언에는 종말론적 현실이 있고, 고통에 대한 신성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목자의 죽음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당화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은 그들이 듣지 못하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부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떨어질 것이라고 선언한 후, 예수님은 내가 일어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힌트,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희망의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보다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살펴볼 때, 복음서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위한 그런 기도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베드로의 항의와 여기서의 예수의 질책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

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언한 후 예수가 거부로 기울어지는 추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언하고 선언한 것으로 칭찬받은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환, 이 항의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는 짧은 몇 구절 만에 반대편에서 단호하게 진술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결코 부인하지 않을 강한 제자들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에 대한 충실함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실패는 빠르고 즉각적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동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이 당신께 가능합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와서 그들이 잠든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잠이 들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은 참으로 원하시나 육신은 약하다.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다시 그는 와서 그들이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매우 무거웠고, 그들은 그에게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잠자고 쉬고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구절의 구조는 제 생각에 예수의 외로움이나 고립과 제자들의 실패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보세요 . 그는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지만, 유다가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유다가 실제로 언제 떠났는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더 광범위한 복음서 서사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떠났는데, 그가 쉬게 될 경비병과 함께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는데, 이미 한 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명과 함께 다시 물러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세 명, 예수가 종종 데리고 다녔던 세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서 더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원에서도 이런 분리의 진행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다시피, 마크, 그가 3을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알다시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 번이나 돌아와서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 반복, 같은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면에 내세웁니다. 만약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겐세마네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올리브 프레스를 뜻하는 단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올리브 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올리브 농장과 비슷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 어쩌면 올리브를 짜는 방앗간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이곳이 예수가 정기적으로 갔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보통 하던 패턴의 일부였다면, 겐세마네로의 그의 퇴각이고, 물론 가서 쉬는 것은 유다에게 그가 찾고 있던 바로 그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예수가 군중으로부터 고립되어 체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구절과 복음서의 다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10:38-39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가 마셔야 할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31에서 베드로는 물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 움직임, 예수가 이런 식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반복적인 반복이 있습니다. 예수가 혼자 이 일을 하는 것, 그의 슬픔. 이 의로운 고통받는 자 그림, 이 내 영혼, 아시다시피, 이것은 자신을 지칭하는 셈족어 또는 시적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죽음이 임박했고, 그가 너무 슬퍼서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것이 시적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문자 그대로 죽을 만큼 슬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편과 거의 비슷한 시적 감각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것은, 맞죠,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용어는 문자적인 용어가 아니라 시간이나 기간을 말하는 방식이며, 심지어 종말론적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인 담론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아바,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드문 경우 중 하나이며, 마가복음에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외침에서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 복음서 전반에 걸쳐 기도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언급되지만, 이것은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가진 최초의 실제 기도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그의 선택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바라는 단어의 사용은 예수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예수가 독특하게 도입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친밀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신이 때때로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로 차려입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헬레니즘 문헌에서도 이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 선언과 법인적 선언의 측면에서 이 아바는 매우 친밀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하며, 아바가 때때로 문맥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어떻게든 아빠를 의미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빠를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과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바는 성인 자녀가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 이전, 1세기 이전의 팔레스타인 유대교에서 개인이 신에게 직접 드리는 그런 직접적인 호칭을 다른 곳에서는 진정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잔이 예수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은 구약에서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잔은 구약에서 신의 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시편 11편, 시편 60편, 시편 75편, 고통이라는 개념, 이사야 51장,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51장, 애가 4장, 에스겔 23장, 하박국 2장, 스가랴 12장에서 잔과 관련된 고통과 신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께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신 것이 곧 일어날 일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적 진술이 아니라 예수께서 단순히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그에게서 면제되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신성한 심판이 쏟아지는 것도 그에게서 면제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은 주님의 날에 대한 엿보기, 독특한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 이 심판의 날, 이 진노의 날은 모든 것의 끝에 수반될 것입니다. 창조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독특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의 묘사와 예수님의 외침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셨거나,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죄 때문에 어떻게든 분리되었다고 말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는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온전히 계시지만, 그는 그의 진노에 온전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심판의 잔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진노이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라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아시다시피, 그가 곧 직면하게 될 스트레스와 슬픔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에게 쏟아질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날은 그에게만 독특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날을 경험하지만 예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으로 고통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완전히 깨달은 가운데, 예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그는 완벽한 고난받는 종의 모티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물론 와서 그가 잠자는 것을 봅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잠이 들었니?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니? 여기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굳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지금은 깨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들이 그와 함께 머물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진심이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단지 육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떠나서 같은 말을 하며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반복은 예수께서 다시 깨어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꾸중하시고, 물론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정합니다 . 아시다시피, 이렇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은 40절에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자고 쉬고 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이는 은유적으로 말해서, 끝났다고 말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하고, 청원의 기도는 끝났으며, 충분합니다. 대답은 실질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 그리고 물론, 마가복음의 독자로서 우리는 8장부터, 예수께서 인자를 넘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이 순간을 향해 일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죄인들의 손에 사용하는 것도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죄인들에 대한 언급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에 대한 그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가복음에서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비난을 자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가 진정으로 죄인들만이 속한 곳에

서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속죄를 놓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죄인들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이 모든 것을 포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가 인간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43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고,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칼과 곤봉을 든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배신자는 그들에게 표징을 주어서, 내가 입맞춤 사람 이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붙잡아 경비병에게 맡겨 두어라. 그가 오자 그는 곧 그에게 다가가서 랍비라고 말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그에게 손을 대어 붙잡았지만, 곁에 서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치고 그의 귀를 잘랐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강도를 대적하여 나를 잡으러 나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전파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몸에 린넨 천 한 장을 두르고 그를 따라가다가 그들이 그를 붙잡았으나 그는 린넨 천을 버리고 별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물론 이 구절을 살펴보고, 53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인도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예수가 인간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의 권위가 여전히 얼마나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 여기서 순종의 패러다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연구 내내 이에 대해 이야기해 왔는데, 제자들의 믿음 부족이 예수 자신의 믿음과 대조되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부족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물론, 입맞춤의 신호, 그렇죠, 유다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식별할지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아마도 어둠 속에서 그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는 이 무리가 예수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요.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키스는 애정과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교회는 키스로 서로를 맞이해야 하는데, 이는 이 순간을 훨씬 더 슬프게 만듭니다. 마크 스트라우스는 잠언 27:6과 잠언 27:6의 진실이 여기에서 어떻게 발견되는지 지적합니다.

친구의 상처는 믿을 수 있지만, 적은 키스를 배가시킨다. 우리는 여기 서 있는 어떤 인물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칼을 들고 하인의 귀를 친다. 마크가 이 순간에 대해 매우 신비롭기 때문에 흥미롭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실제로 칼을 뽑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저 어떤 남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귀를 잘린 하인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요한은 칼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하인은 말고스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대화가 있고, 대화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실제로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 행위를 꾸짖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방금 언급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즉시 남겨집니다.

그리고 저는 긴급성의 감각이 예수가 이런 식으로, 이런 군사적 방어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의 초점은 마가복음에서 이 집단에게 매우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공격을 저지하려는 시도, 말하자면 체포에서 매우 빠르게 벗어나 다가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는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의 질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그들이 강도나 반란군인 것처럼 무기를 들고 와서 국민과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질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밀리에 그것을 합니다.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많은 기회를 가졌지만, 결코 그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한 점은 당신이 내가 위협인 것처럼 왔지만, 당신은 이 행동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선과 체포하는 자들의 모든 행동 사이의 긴장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위는 현존합니다. 그의 옆에 칼을 뽑을 만한 자들이 있고, 체포하는 당사자 자체가 추론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저항의 관점에서 그들 중 누구에게도 서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권위는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가랴 13:7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자가 넘겨지고 체포될 뿐만 아니라 목자가 잡히면 양들이 흩어지고 50절에서 즉시 나타나서 모두 그를 떠난다고 예언합니다.

베드로의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제자들의 떠남은 이 모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들을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크, 그들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매우 이상한 사건을 가지고 있고, 51-52절이 이상하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청년이 몸에 린넨 천만 두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린넨 천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가장 좋은 가능성 중 하나는 이 젊은이가 몸에 린넨 천만 두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떻게든 그는 서둘러

겟세마네로 따라가려고 달려갔고, 이것이 그가 입은 전부였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는 어떻게든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곳을 따라간다. 그는 조금만 따라가지만, 너무 오래는 따라가지 않는다. 사실, 벌거벗고 도망가는데,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제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아마도 상호 배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는 마크가 편지를 쓰고 있는 공동체가 알고 있는 인물이며, 그들은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들이 아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크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자서전적 삽입의 저자인 존 마크일 수 있다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자서전적 진술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마크가 겸손한 방식으로 자신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는 압박을 받았을 때 알몸으로 도망쳤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 존경하는 방식으로 삽입하는 순간이 아니라 부끄러운 방식으로 삽입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53절에서 우리는 재판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개의 재판 장면이 나오는데, 산헤드린 앞에서의 유대인 재판과 빌라도 앞에서의 로마 재판입니다. 유대인 심리의 목적은 예수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로마 총독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따르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재판에서 추가 단계를 거칩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다섯 장면을 나누었고, 어쩌면 약간은 비웃는 샌드위치 장면도 있는데, 체포에 대한 설명이 있고 재판이 두 번 중단되는데, 먼저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오는 진술로, 그다음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으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샌드위치 아이디어를 너무 강조하기 전에 조심해야 할지 궁금하고, 그저 장면을 로테이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매우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충실하게 증거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안다는 사실조차 부인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증언하는데, 이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안다는 사실과 고난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혼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판의 수의 역사성은 종종 미슈나에서 발견되는 내용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받아 왔습니다. 산헤드린과 사형 사건에 관한 미슈나에 따르면, 첫째, 밤에 재판을 할 수 없었고, 유죄 판결은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안식일 전날에는 재판을 열 수 없었는데, 안식일 전날이었을 것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재판을 열 수 없었고, 사형 선고에는 항상 두 번째 심리가 필요했으며, 미슈나는 모순되는 증거는 무시해야 하며,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신성모독 혐의는 피고인이 신의 이름을 발음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었고, 재판은 예루살렘의 세 법원 중 한 곳에서만 열릴 수 있었으며 대제사장의 거주지는 그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판이 이 모든 것을 위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다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글썄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매우 서둘러 비밀리에 하려고 했고, 규정을 따르는 것은 그들에게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슈나가 2세기 말에 이러한 재판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세기 말에 요구되거나 기대되었던 관행이 이 순간에도 적용되는지 항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미슈나에 나오는 규정은 아마도 발생했을 수 있는 남용 때문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공식적인 재판이라기보다는 빌라도에게 제시할 예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미슈나는 바리새적 관행 이상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에서 산헤드린은 대부분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단순히 로마인만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거나 순서가 어긋났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재판의 역사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유대인 통치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 지도자들, 예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했다는 명확한 진술이 있고, 그들은 이제 비밀리에 예수를 비난할 순간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중을 두려워했던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를 체포하고, 순간을 통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반대 세력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그를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하고, 로마에 맞서게 할 혐의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 리더십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을 저지를 힘이 없더라도, 예수의 죽음을 위한 대의를 위해 일어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본다는 사실은, 그들이 반드시 이 일을 하기 위해 의정서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가는 그들이 찾아가는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야바라고 말합니다.

가야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서기 18년부터 36년까지 그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는 서기 15년에 로마인에 의해 폐위된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안나스의 아들 다섯 명과 그의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봉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는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산헤드린을 구성하기 위해 세 그룹이 취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산헤드린, 여기의 이 참조는 아마도 정족수를 말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살펴보면, 이 유대인 음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증거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예수에게 죽음을 선언한 사람이 빌라도였지만, 마가는 로마인만이 이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인도했고, 모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 그룹의 정원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그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실제로 거기서 약간의 용기를 보였다. 그리고 그는 경비병들과 함께 앉아 불을 조심하고 있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에 대한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를 거짓 증거하였지만, 그들의 증거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0절.

그러나 그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축복받은 자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마치, 알다시피, 재판이 이제 예수에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를 거스르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절에서 그들은 그를 파괴했다는 혐의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손으로 만든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만에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알다시피,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증언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흥미로운 점은, 이 실제 진술은 예수께서 가장 최근에 성전에 계셨을 때 들은 말씀, 즉 그가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사흘 후에 그들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다른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요한 복음에서 그 진술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에서 예수께서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 내용이 있지만, 수난주간에 대한 내용과는 약간 다르고, 물론 요한의 경우, 예수께서 이 진술을 하시는 복음서의 아주 초반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논쟁, 이 아이디어, 예수가 성전에 두 번 들어갔는지 아니면 한 번 들어갔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의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지, 증인들이 예수가 성전 파괴와 관련하여 한 진술에 대해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두 가지 별개의 활동이 있었고, 며칠 전에 이러한 매우 종교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한 진술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알다시피, 요한 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는 한 번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첫 번째 경우에 그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혐오감을 보였고 이러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은 잘 진행되지 않고, 예수는 대답하지 않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런 다음 대제사장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당신이 축복받은 자의 아들인 메시아이신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자의 아들은 물론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은 용어이고, 그래서 그것은 용어의 역사성을 말해줍니다. 축복받은 자의 아들은 메시아를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메시아를 신의 아들로 식별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것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가 신성하고 축복받은 자의 아들인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은 가운데에 일어섰습니다. 물론, 마른 손을 가진 남자가 모든 사람 가운데 일어서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의 침묵은 이사야 53:7과 비슷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물론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는 이러한 동일시를 적극적으로 약화시켜 왔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받아들인 특정한 메시아적 함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의 당나귀에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고, 물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그의 복음서 전반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여덟 장에서 질문은 항상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권위로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치유할 수 있는가? 폭풍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질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물론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6:2에서 내가 그이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저는 이런 의미에서 거의 궁금합니다. 여기서의 전체 재판이 실마리에 매달려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냥 침묵을 지키셨다면 아마도 재판이 그의 뜻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침묵을 지키지 않기로 한 결정은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던 것을 주었고, 그것은 그를 고발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들을 비난할 기회를 줍니다. 그의 대답 중 하나는 그가 매우 직설적으로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은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정치적 탄약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가 정치적 통치자가 되려고 하고, 로마에 대항하여 사람들을 통합하고 불신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자를 볼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실제로 두 번째 대답은 더욱 도전적이 됩니다.

두 번째 측면은 그들이 하늘 구름 속에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13에서 14까지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인자와 같은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태고의 날들보다 먼저 와서 영광과 통치권과 영원한 왕국을 받습니다. 제가 믿는 바에 따르면, 예수께서 여기서 하시는 일은, 내가 메시아이자일 뿐만 아니라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형상이 와서, 알다시피, 지배권을 받고, 시련이 올 것이라는 언급이 있고, 당신이 나를 심판하고 있지만, 인자인 내가 당신을 심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시점에서 대제사장들에게는 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그들은 알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거나, 그가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증인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신성모독을 들었느니라, 64절, 너희는 그의 신성모독을 들었느니라. 너희의 결정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를 죽음에 합당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를 때리며, 그에게 말하되, 예언하라. 그리고 경비병들은 그를 때리며 맞았느니라.

그래서, 구절에서, 아시다시피, 여기 65장까지, 우리는 유대인 재판이 끝나고,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인자임을 확인하고, 그들이 그를 거부하고, 그는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바로 그의 죽음이 그의 메시아적 주장의 타당성과 그가 인자라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6장부터 72장까지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마가복음 14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베드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강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66~72년에 우리는 아래 안뜰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대제사장의 하녀 중 한 명이 읍니다.

그녀는 아마도 하녀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린 여성일 수도 있고요. 언어가 어린 소녀가 아니어도 괜찮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몸을 녹이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는 부인하며,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는 관문으로 나갔는데, 제 생각에는 그가 주로 관문으로 나간 것은 그가 그것을 알아본 노예 소녀와 헤어지려고 하기 때문이지만, 또한 필요할 경우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수탉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녀가 그를 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 이 남자는 그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가 베드로를 직접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다른 하인이거나, 아니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거나, 경비원 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 번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분명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마가는 그들이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는 그의 말투와, 아마도 그의 악센트를 어느 정도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이 그룹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럴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은, 제 생각에, 그의 부인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에게 저주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고, 맹세하기를, 나는 당신이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ESV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어로는 그가 맹세하고 저주를 요청하기 시작했다고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주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용된 언어는 전형적인 반사적 언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주를 걸 때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저주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저주를 걸었고, 마가는 그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실제로 예수에게 저주를 걸고, 예수가 저주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 세 가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세 가지 중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ESV가 여기에서 선택한 것은 자신에게 저주를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에 관계없이, 맹세와 저주의 언어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의 진실을 입증하는 일환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저주하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비난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인자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은 예수를 모독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하녀와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두려워서,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말의 진실성을 검증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 말은, 베드로의 두 부인의 대조는 단순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인의 힘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종교 지도자들과 훨씬 더 가깝게 만들어서,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선언하고,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성모독을 선언한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에서 그 진술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같은 일을 하는 데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기억했고, 그러자 즉시 수탉이 두 번째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에게 수탉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이것을 예언하셨고 정확한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베드로는 아마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께서 수탉과 그의 부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저기에 계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복음서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그에게 영감을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재앙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예수께서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어, 베드로. 우리는 예수께서 유다에 대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유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는 울고 즉시 자신이 한 일을 알아차리고, 어쩌면 그의 슬픔의 힌트를 알아차립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 15장과 예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Mark Jennings 박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마가복음 14:26-72, 최후의 만찬, 체포, 재판,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입니다.